

##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의 유형분석

류 근 종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A Study on Types of Surrealistic Fashion Art

Keun-Jong Lyu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6. 10. 27 투고)

#### ABSTRACT

This research searched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of Surrealism in Fashion Art which is new genre as source of design origination and classified as type of Time, Instinct, Existence and analyzed these and after analyzed result, it tried to verify the value aesthetically and followed by compared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in Surrealism appeared in Art based on content of type of expression that deduced and discussed it. Also comparing common characteristic appeared in Fashion Art in surrealism of the east and the west, it suggested discussion that try to find out identity that draw more near to Fashion Art.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ing these;

Surrealist deliver sentiment and emotion that impossible to happen in reality and primitive thought by combination of unrealistic image and this tendency concreated by expression of Time, Expression of Instinct, expression of Existence. It appeared that deconstruct function and purpose of Fashion Art and existing traditional beauty of form and it is in collusion with way of expression of modelling used in Art of Surrealism those are Irregularity, Disorder, Imperfection and Dissymmetry.

Key words: surrealism(초현실주의), fashion art(패션아트), time(시간), instinct(본능),  
existence(존재)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팝 아티스트들보다 50년이나 일찍 새로운 가치관의 미감으로 '예술과 생활(Art and Life)'의 통합을 시도한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은<sup>1)</sup> 패션디자인의 미래에 대해 '예술이 생활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sup>2)</sup>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미국의 의류학자인 파렐 벡(Farrell-Beck)과 페쉬(Petsch)도 '순수예술에서 추구하는 의미가 패션디자인에 영감을 주며 패션의 모티브는 다른 예술 분야와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sup>3)</sup> 즉 건축, 조각, 공예 등의 조형 예술과 마찬가지로 패션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아래 탄생되며 서로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술사조와 연관 지어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종래의 예술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정신의 해방을 이루고자 한 초현실주의 예술사조가 패션아트에 어떻게 수용,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여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패션아트를 이해하려 함이다.

둘째, 패션아트의 초현실주의적 표현특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패션아트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 함이다.

셋째, 인간감성의 새로움 추구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순수예술로서의 패션아트 작품표현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더불어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적인 패션디자인 발상과 전개에 기여하려 함이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패션아트 작업을 진행하거나 연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1997년 이후 발표된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벨기에, 영

국, 핀란드, 독일 등 동서양의 '패션아트'<sup>4)</sup> 작품 중 초현실주의적 사고와 표현특성이 나타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작품의 표현유형 분석을 위해 1910년대부터 1940년대의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과, 초현실주의 표현방법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던 1930년대부터 1990년대의 패션디자인 작품 중 선행연구의 결과로 대표성을 가지는 작품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현대의 예술과 초현실주의

20세기 예술은 그 이전의 시대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렸던 변화하는 사상과 생활의 양식들을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의미<sup>5)</sup>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연을 이탈하여 예술의 자주성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형태나 무의식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등의 변모를 하게 되었다.<sup>6)</sup>

예술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주축으로 경험을 '표상화'하려는 인간의 상징적 사고로 이루어지며<sup>7)</sup> 예술은 이처럼 인간에 의해 보여지는 세계의 관점으로 이해된다. 예술이 보여주는 세계는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언제나 예술가의 체험 세계 내에서 해석되고 창조된 세계이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성취와 관계하여 예술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와 연관되어 이해된다. 또한 문화와 예술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존재 근거와 의미를 얻게 된다. 그것은 예술이란 근원적으로 자연에서 유래하며 문화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sup>8)</sup>

예술 작품은 자연이나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인간에 의한 행위에 대한 상징적 산물이며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에른스트 캣시러(Ernst Cassirer)<sup>9)</sup>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하나의 특수한 표적, 새로운 방법인 상징 계통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생물학적 종(Species)이 바깥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계통과 그것에 의하여 이 바깥의 자극에 반응하는 운동 계통 사이의 제 3의 연결이라 하였다. 이는 인간의 생활을 양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획득물로서 인간생활 전체를 변형시킨다.

초현실주의 표현의 뿌리는 다다이즘에서 찾을 수 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기성의 전통과 질서에 대한 파괴운동이었던 만큼 비합리를 예찬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흐르며 플라주와 같은 새로운 표현기법, 오브제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의 도구를 채택하였다. 다다이즘 출현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생성된 과학만능주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증적 신념의 시기였으며 기계과학 문명에 의지한 채 물질적 탐욕을 만연케 하였다. 기존 문명이 결국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다다이스트(Dadaist)들은 현실세계에 대한 파괴와 부정 즉 자아의 부정과 전통적 도덕질서의 폐기를 꾀하였다. 이렇듯 허무주의에 빠진 사회배경으로부터 출현하여 「뒤상(Marcel Duchamp)」<sup>10)</sup>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다다이즘이 찾는 예술의 절대성은 무에서의 창조인 예술과 무로 되돌아가려는 예술성이며」<sup>11)</sup> 이러한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활동은 기존의 모든 정신적 가치와 그 산물을 초월하는데 있었다.

다다이스트들은 단지 사회윤리나 도덕, 기성가치, 일상적 행위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 순수한 절대자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다는 미래주의와 입체주의의 기법들을 차용한 반문화 운동이다. 그러나 반문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서구미술의 고래부터의 특징인 합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의도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이성적 판단이 기저에 있는 것이다.<sup>12)</sup>

단순한 부정과 파괴에 그친 다다는 모든 것을 부정했기에 그 자신 역시 부정되어야 했고 그 결과 종말을 초래하고 말았다. 다다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브르통, 엘뤼아르, 아라공, 그리고 수포 등은 ‘예술’이란 기존의 가치에 대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는 ‘희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부정의 정신인 다다가 재부정의 과정

을 거치면서, 마침내 초현실주의로 태동하게 된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발생은 1924년 브르통(Andre Breton)<sup>13)</sup>의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sup>14)</sup>으로 시작되지만 사상적 기초는 1919년 발표한 자장(Champs-Magnetiques)이라는 ‘시’작품에서 주장했던 사조로서 “이미지의 순수한 표현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의 방해와 통제가 없는 무의식적인 행위로서만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sup>15)</sup> 초현실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기계 문명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문화의 갈등 속에서 문학, 미술, 철학의 흐름은 양차대전을 전후하여 개인의 내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인간회복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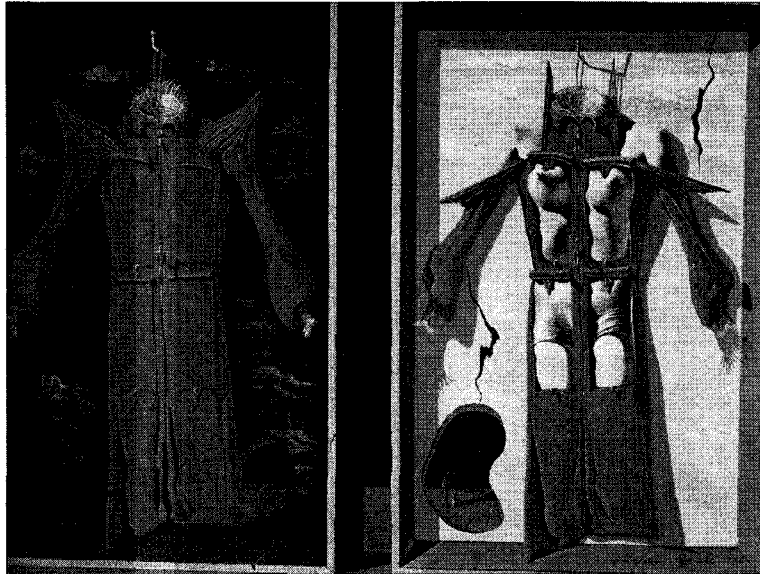
초현실주의는 산업적 문명사회에 반기를 들고 인간정신 영역의 전체적 혁명을 목표로 전개된 범사회적 운동이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적 사고의 활동영역 이면에 잠재한 잠재의식,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 신비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여 인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총체적인 조화, 즉 초현실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 정신운동이었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보다 정열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며,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만족하지 않은 영원한 인간욕망의 표출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성에 의한 여하한 제어도 받지 않고 심미적 내지 도덕적인 배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고 그대로의 기록을<sup>16)</sup>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깊이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얻어내려는 초현실주의는 잠재의식, 무의식, 꿈, 광기, 부조리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과감히 해방시키고 의식과 무의식, 내적세계와 외적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장벽을 넘나든다. 현실과 비현실, 명상과 행위가 잡고 하고 혼합하여, 전 생명을 지배하게 되는 초현실성을 창조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상상력 해방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역을 제창하며 인간자체의 자유와 변혁을 지향하고 논리의 이면을 파헤치는 과학적 의미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영원한 질문을 던져주는 인간사상이다.

ANDRÉ BRETON  
**QU'EST-CE QUE LE  
 SURRÉALISME?**



RENÉ HENRIQUEZ, Editeur  
 Rue d'Amboise, 13, BRUXELLES

〈그림 1〉 Rene Magritte, Cover for  
 Andre Breton's Qu'est-ce que le  
 Surrealisme?, 1934



〈그림 2〉 Salvador Dali, Night and Day Clothes of the Body, 1936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현실을 개작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환상을 자의적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 초현실주의는 공통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운동이 되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 예술의 중요한 표현특성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가의 문제이다. 예술에의 관점은 구체적인 시야를 의미하며 존재론적 의미와 초월성에 따라 형성되는 창조의 과정을 의미하며 객체적 문화 현상을 넘어 존재한다. 현대의 예술에서 특히, 초현실주의라는 예술사조에서 자기의 본질을 넘는 초월적인 이해와 자기성취의 총체적 해석은 그 자체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 행위의 표출로 드러나며 표현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 초현실주의 표현특성과 유형

초현실주의는 빙산처럼 수중에 가리어 있었던 무의식의 영역에 눈을 돌렸다. 즉, 이성의 반대의 극점, 합리의 반대쪽의 세계이다.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예술은 이성과 감성, 정신과 마음이 합치는 지점에 그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예술은

그러한 조화, 통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의 자아는 밝음과 어두움의 두 부분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스 리히터(Hans Richter)가 “초현실주의는 다다를 집어삼켰고 소화하였다.”<sup>17)</sup> 라고 말했듯이 초현실주의는 폭발적인 다다이즘(Dadaism)의 출발을 계기로 포괄적인 이론과 방법을 발전시켰다. 초현실주의는 시각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과 같은 이념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브르통의 ‘시각예술은 앞으로 순수한 ‘내재적 주제(Purely inner subjects)’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각예술은 소멸할 것이다.’<sup>18)</sup>라는 경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제의 선택을 인습적인 사고를 초월한 상상력으로부터 구하려 했는데 보들레르도 이점에 대하여 ‘위대한 예술가를 만드는 신비스러운 천재란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정열적 기질’이라면서 ‘상상력이란 탁월한 재능이며 인간의 모든 능력 중의 여왕이다. 이는 무한과 연결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초현실주의 작업은 ‘심리병리학적’ 예술이었다.

따라서 물질적 관심, 예술적 야심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서 메시지를 얻어내려는 '영매'에 의한 작업이나 정신질환자의 작업도 포함된다. 이는 인간내면의 세계인 잠재의식, 무의식, 꿈, 광기, 부조리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과감히 해방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즉 '개념적 표현'이 '지각적 표현'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sup>19)</sup> 결국 초현실주의 목적은 의식과 무의식, 내적세계와 외적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육체적, 정신적인 장벽을 부숴버리고, 현실과 비현실, 명상과 행위가 잠교하고 혼합하여, 전생명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초현실성을 창조하는데 있는 것이다.<sup>20)</sup>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진부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닌 예술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브르통의 말처럼,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능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그것은 기존의 문화적 전통이라는 권력에 대한 하나의 반담론 혹은 대항담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거대한 기호체계로서 그 자체로 인간을 무한히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주관적 환상의 경이로움을 표현해 인간의 상상력을 구속하는 모든 현실적 논리와 그 권력에 대항하려 하였고 이와 같은 정신아래 표현되었던 초현실주의의 표현특성은 각 작가들의 철학, 생활배경 및 표현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호안 미로(Joan Miro)와 같이 기호화된 세계를 상징적으로 창조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와 같이 구상과 추상의 요소를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특히 직관적인 오토마티즘(Automatism)의 강조와 신비적 우주감의 개념적 표현이 보인다. 이브 탕귀(Yves Tanguy)는 생태학적으로 몽유병적 상상을 헤저의 풍경을 중심으로 하여 표현하였는데 「인체의 부분과 같은 사실적 형상과의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sup>21)</sup> 그는 작은 돌, 아메바 같은 상상적이고 유기적 물질

의 서식처와 같은 기이한 꿈의 체험을 오토마티즘을 통해 표현하였다. 비현실적 요소가 주어져서 실제적 요소가 불가사의한 사건과 상호 연결되는 '품격 높은 환각'의 인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작품과정에 대해 '백일몽 상태에서 자주 생기는 부화, 발생, 탄생, 이 같은 감각의 가치도 오직 얼마 후에 명백해진다'고 역설했던 아르프(Jean Arp)는 실제의 작품제작에서도 형태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붙이면서 진행하였다.<sup>22)</sup> 이렇듯 「탕귀의 화면에 움직거리는 생물을 생각해 하는 형태와 관련 있는」<sup>23)</sup> 그의 작품은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하는, 즉 무의식을 재편집을 하는 「우연폴라주(Chance Collage)」<sup>24)</sup>에 의한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셋째, 조지오 키리코(Gorgio de Chirico)에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에 이르는 편집광적 비판방법(Paranoia critique)<sup>25)</sup>으로 철저하게 해석된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의 해방을 분석적이고 계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그리트(Magritte)나 달리처럼 계산된 왜곡이 개입되지만 사물이 어느 정도 현실과 동질성을 지니는 세밀한 묘사표현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이브 탕귀(Yves Tanguy)와 같이 생태학적인 표현이 추가 되게<sup>26)</sup> 표현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현실을 개작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환상을 자의적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 초현실주의는 공통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운동이 되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 예술에의 중요한 표현특성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가의 문제이다. 예술에의 관점은 구체적인 시야를 의미하며 존재론적 의미와 초월성에 따라 형성되는 창조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문화 유적에 담겨 있는 것이나, 객체적 문화 현상을 넘어 존재한다. 현대의 예술에서 특히, 초현실주의라는 예술사조에서 자기의 본질을 넘는 초월적인 이해와 자기성취의 총체적 해석은 그 자체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 행위의 표출로 드러나며 표현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표 1> 초현실주의 표현방법과 개념

	대표적인 논자와 작가	표현방법	표현개념
오토 마티즘 표현	·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 이브 탕귀(Yves Tanguy) · 앙드레 마송(Andre Masson) · 호안 미로(Joan Miro)	· 순수한 내재적 주제에 의한 원형적인 추상 표현 ·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기호화된 환상적 세계와 상징적 요소의 자유적 표현	· 반담론, 대항담론의 표현개념 · 이성적 사고 거부의 표현개념 · 우연성의 강조와 창조의 표현개념
우연 플라주 표현	· 로트레아몽(Comte de Lautréamont) ·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 한스 리히터(Hans Richter) · 아라공(L. Aragon)	· 구상과 추상의 이미지와 요소들 무의식적인 미감으로 혼합시켜 표현 · 우연의 법칙에 따라 무의식을 재편집하여 배열하는 실험적 표현	·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는 희망의 표현개념 · 기존의 가치에 대한 거부의 표현개념 · 신비적 우주감의 환각 표현개념
편집 광적 비판 표현	· 프로이드(Sigmund Freud) · 조지오 키리코(Gorgio de Chirico) ·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 피카소(Pablo Ruiz Picasso)	· 철저하게 해석된 · 심리병리학적 내면의 자의적, 지각적 표현 · 현실과 동질성을 지니는 극사실적인 형상의 세밀한 묘사적 표현	· 현실세계에 대한 부정의 표현개념 · 자아의 부정과 도덕질서 폐기의 표현개념 · 이성세계의 억압에 대한 해방의 표현개념

### 3. 초현실주의와 패션

그리스 시대부터 '옷을 만드는 것'은 '숨씨' 혹은 '기술'을 의미하는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래 예술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복식은 예술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기 모리스(William Morris)의 미술공예운동(Art & Craft Movement)에 의하여 다시 예술의 한 영역으로 포괄되었으며, 디자이너의 예술적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오고 있다.<sup>27)</sup>

현대패션은 이미 옷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으며<sup>28)</sup> 패션의 양식은 복식 그 자체가 미적대상으로서 외적 형태미, 즉 조형성을 포함하며 이 조형성을 빌려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내용을 이룬다. 이 내적 내용은 인간의 감성이 기반이 되어 느꼈을 때 비로소 미적 가치를 갖는다. 특히 현대에 있어 패션은 신체를 보호하는 도구적 기능보다 치장과 장식을 함으로써 패션을 통한 비언어적 전달매체의 기능, 즉 표현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복식의 미적 가치 및 미적 경험을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즉 패션에 표현된 디자이너의 예술의지나 시대정신, 문화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보는 이의 느낌이기도 하다.<sup>29)</sup> 이러한 점에서 패션은 예술의 한 영역으로 간주 된다. 스쿼리에(Squrie)<sup>30)</sup>는 '예술로서의 복식'의

시작이 19세기 중반 오프꾸뛰르(Haute-Couture)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옷이 개인 정신의 의식적 산물 혹은 표현의 매체로 사용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특별한 창조적인 옷과 장신구 디자인, 또 개인에 의한 선택, 조합도 예술적 행위이며 '예술로서의 의상'<sup>31)</sup>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세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패션은 계급차별화에 따른 동조나 비동조 구분의 요구(Need)가 아니며, 사회문화적 대서사의 반영에 따른 수단도 아니게 되었다. 패션의식이 있는 멋쟁이, 개인의 취향의 차별화에 따른 욕망(Desire)의 수단인 것이다. 패션은 개인으로 하여금 멋진, 화려한, 자유분방한, 유능한, 고전적, 지적인, 세련된,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우아한, 튀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의 미적(Aesthetic)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 유행하는 다양한 패션을 입음으로써, 다양한 미적 즐거움, 유희, 쾌를 실증하게 한다.<sup>32)</sup>

패션은 인간의 상징적 행위의 산물로서 오랜 동안 변화하여 왔다. 옷을 만드는 데 있어 시대, 민족, 집단, 개인에 따라 특유한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이 특유한 기술과 방법은 독특한 복식의 형태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패션은 조형예술의 한 영역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이 형태를 빌려 내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그 시대, 그 민족 혹은 개인의 미적 기준, 즉 형식과 원리에 기

초하여 전형적인 형태를 창조하였다.

에릭 길(Eric Routine Gill)은 인간의 의상은 신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충하여 만족시키기 위하여 입는 '예술작품'이라고 했다. 패션은 그 변화의 주기가 빠르고 감성적인 관여도로 선택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발상과 표현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종래의 예술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해방을 이루고자 한 초현실주의 표현은 패션과 관련분야의 표현적 대안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곧 기존의 심미적 균형과 인습적 질서에 반항하는 반예술의 사상으로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전형적인 미의 반영이 아닌 허무, 도박, 파괴, 미의 모독 및 붕괴를 의미하는 반패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초현실주의 패션디자인의 영감으로 응용되었으며, 개인적 미감을 적용한 형태의 실험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그림 2>

패션의 표현에 있어 초현실주의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몸의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표현의 변화를 수반하며 전개되었다. 혁명적 성격을 띤 초현실주의 예술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패션계로 옮겨온 이후 초현실주의의 영향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아직도 신선한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현대 조형예술의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대중의 다양한 미의식이 패션아트에 태동을 자극하였다. 여기에 사진작업의 즉각성과 이미지 연출방법이 차용되었다. 일부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인체의 실루엣에 치중된 기존 의상의 단순한 변형이나 전개 개념을 벗어나 에너지, 열정, 욕망의 표현 매체로서 패션을 생각하였으며 즉흥적 제스처와 신속한 영감의 표출을 기민하게 개발, 전개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에서 전혀 시각을 달리하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잠재워진 비합리적 무의식 세계를 현실로 끌어내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방법과 유사하다. 특히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디자인 작업에 연루시킴으로써 의상과 순수 예술의 두 범주를 분리시켜 왔던 기존의 개념을 붕괴시키며 현대패션의 전개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다주었다.

#### 4. 패션아트

현대예술의 활동 영역은 과거와는 달리 경계가 없는 복합적인 예술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가들의 새로운 미적 욕구와 자유로운 형식의 도전들은 예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중 패션과 미술이 결합하여 미술의상(Art to Wear)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 미술의상이란 미술의 개념과 의상의 기능성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양식이며 내부의 무형의 아이디어가 외부의 '신체'라는 대상을 통해 유형화된 것이다.<sup>33)</sup>

패션아트에 의미적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술의상'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미국에서는 물질문명과 대량생산체제에 대한 반발로 대중적으로 문화적이며 예술적인 것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패션디자인과 관련하여 미술작품과 같이 자신의 주제를 강력히 표현하려는 창조적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질어졌으며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옛 모델을 기피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다.<sup>34)</sup> 그리하여 새로운 재료의 실험적인 기법이 창안되어 시각적 질감을 표현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부터 인체를 하나의 움직임의 조각으로 보는 바디커버링(Body covering)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섬유예술, 조각 등을 전공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본격적으로 미술의상을 발표하면서 옷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서 조형적인 면에 중점을 둔 의상을 제작하였다.<sup>35)</sup>

1980년대에 이르면 미술의상은 점차로 변화하고 성숙해졌으며 그 운동의 범위도 확대되어 세계로 퍼졌다. 이 시대의 미술의상은 현대 예술, 건축, 그리고 패션을 반영하여 기법들에 의해 특징화되는 재료들과 이미지들이 절충된 표현으로 작품들은 더욱 기교 넘치고 능숙한 기술을 나타냈다.<sup>36)</sup>

한국에 처음으로 미술의상이 소개된 것은 1985년 미국문화원 주체로 열렸던 '미국 미술의상전'이다. 이것을 계기로 1986년 섬유미술가, 의상디자이너, 의상관련학과 교수들이 모여 동방플라자 전시관에서 '1986 현대의상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일반인

에게 미술의상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주었고 이제까지의 제한된 형식의 의상개념에서 벗어나 미술의상을 순수예술의 한 장르로 접근시킬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후 패션디자이너들과 의상관련 학과 교수들이 모여 한국 예술의상협회가 창립되었고 1996년에 창립전시회를 가지며 '패션아트'로 전개되었다.

지금껏 연구되어진 바에 의하면 패션아트는 예술적인 의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입을 수 있는 예술'의 의미로 한정시키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을 강조한 의상으로서, 수공예적 요소를 부가한 의상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37)</sup> 패션아트는 기존의 대량생산과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틀로서의 의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기존의 패션에서 중요시 다루어 왔던 신체와 정확히 일치되는 의상의 명확하고 기술적인 재단기법에 의한 구성과 조화 등의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거부하는 극도로 과장된 조형적 양상으로 나타나 고정관념의 해체된 경향들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38)</sup> 이렇듯 패션아트는 입을 수 있건, 없건 간에 그 매개가 인간의 몸이고 패션 아트 작가들은 의상을 이용해 인간의 욕망, 죽음, 젠더, 정체성, 성적쾌락 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션아트는 인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시작되는 창작행위지만 예술분야에서 그 기능성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패션아트는 패션의 전통적 기능성인 '입혀진다.'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보여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패션아트와 같이 인체를 축으로 전개되는 조형작업은 다양한 영역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인체와 빛, 인체와 기체, 인체와 색채, 인체와 물체 등의 물성적 표출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인체와 조형적인 관계성을 갖게 되면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가치를 갖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은 관조자들에게 미적 시각성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인체와 만나지는 색채와 물체의 조화성을 통해 형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려는 이상성이나 목적성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정체성들을

의도적으로 표출시키려는 발상에 의해 작업을 전개시키며, 그러한 결과물에서 우리들은 시각적 감상의 출발점을 갖게 된다.<sup>39)</sup>

패션아트는 패션디자인의 기능적 전통을 근거로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형태의 변형에 의한 미감표현의 한정된 개념을 초월하여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의 표현이 주가 되는 확대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패션아트란 대중이나 자연의 요구로 의복을 만들거나 편리함이나 기능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기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충동과 환상을 표현하는 현대의 예술형식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션아트는 순수하고 주관적인 예술행위로 사고의 시작에서부터 발상에서 전개와 완성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전통적인 패션디자인의 방법론과 상이할 수도 있으며, 인체에 입히고 활동하도록 해야 하는 패션디자인의 기능성과 목적성을 상실하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순수조형 표현으로의 역할과 가치를 갖기도 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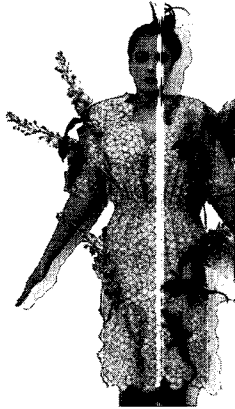
### Ⅲ. 유형분석

#### 1. 시간성

일반적으로 '시간성'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전승되어 온 모든 종류의 관념을 포함한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세계와 나에 관한 인식은 개인적인 우주관을 통해 나타난다. 우주관이란 우주의 기원, 구조, 운명 등에 관한 개인적인 믿음을 포함한 관념체계의 한 부분인데 그러한 관념은 작가의 예술표현 의지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우주관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계열적으로 서로 관련시킴으로써 세계의 현재 상태를 프레임(Frame)적인 상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에서 시간성의 개념은 다양한 관념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적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시각적 프레임으로 상징화 된다. 이는 두 개의 대립적 또는 상보적 부분 등의 모든 결합을 하나의 전체로서의 이원론으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작가의 표현을 합리화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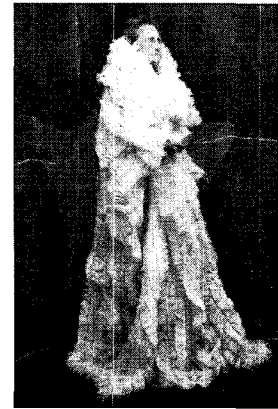
〈그림 3〉 Cinzia Ruggieri, *Weeds Dress*, 1983



〈그림 4〉 Kosuke Tsumura, *Final Home 44-pocket parka*,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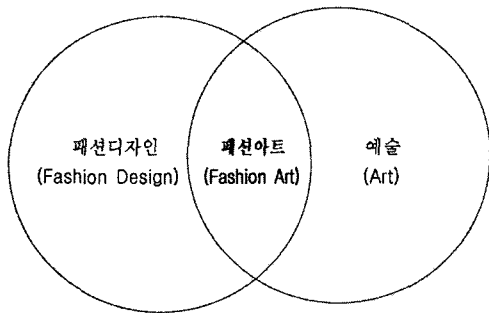
〈그림 5〉 Elsa Schiaparelli, *Evening Dress with Lobster print*, 1937.



〈그림 6〉 Barbara Weiler, *Station of life - Body shells*,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2000.

한다. 시간성의 개념이 표현된 패션아트작품을 살펴 보면 인간을 비롯하여 초현실의 존재, 비현실의 존재들이 등장하며 특히, 원시에서 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작품에는 초현실적 사건, 비현실적 사건이 발생하며, 패션아트의 배경은 시간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며 초현실주의 패션아트의 '시간성'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가 구분되어 있고 일차적 세계와 이차적 세계가 있으며 그 두 세계 사이의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초현실주의에서의 시간성은 비현실의 세계인 이차적 세계로서, 작가는 이차적 세계에서의 환상을 현실 세계인 일차적 세계로 담아오는 구조를 가진다.

〈표 2〉 패션아트의 현대적 범위



시간성의 개념이 패션아트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경험의 이면을 연구하는 과학과 달리, 창조적 사고라는 것은 그런 감각적 성질 및 그들 사이의 '대립'을 활용하여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혼동, 시간의 결합에서 파생되는 원시와 미래의 요소가 이전의 예술 표현에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때로 혐오스럽고 기형적인 형태로 전환되며 그로테스크한 형태와 미감을 보여준다.

코스케 츠무라(Kosuke Tsumura)의 작업은 44개의 투명한 비닐 포켓으로 제작한 투명한 비닐소재의 파카에 개인적이고 상징적인 오브제와 시간의 흔적을 담는다.〈그림 4〉 패션아트 작가들은 지각된 것과 인식 사이의 모순된 진실을 패션에 대입하였고 이는 실재와 환영사이의 이중적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이중적인 이미지의 적용은 꽃이나 조류, 원시주의의 표본으로서 바다가재나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의인화시키거나 구조적으로 변형하여 초현실의 이미지로 치환하며 주관적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서 빈번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 표현의 시초가 된 스키타파렐리의 '바다가재가 프린트된 이브닝 드레스'는 원시의 시간개념을 현대성에 끌어 들여 초현실적으로 표현함을 볼 수 있다.〈그림 5〉

또한 웨일러(Barbara Weiler)의 ‘스테이션 오브 라이프 - 바디 셸즈(Station of life - Body shells)’는 작가의 96세 된 고모할머니를 위한 네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간성에 의해 변해가는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초현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그림 6>

## 2. 본능성

몸과 성의 개념은 패션아트에서 일차적으로 추구되어야 될 대상이며 창의적 패션아트를 위한 확대된 개념으로서 실험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몸은 성욕의 중심지이자 표현의 장소로서 쾌락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의 억압과 간섭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이다. 또한 문화적 의미와 기호가 매겨지는 텍스트의 바탕이다. 더 이상 모순된다고 느끼지 않는 정신의 어느 지점<sup>40)</sup>을 체화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적 사고에 의한 몸과 성의 탐구는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이미지의 자의적인 형태로 감각화 되어 표현되어졌으며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sup>41)</sup>에서 성과 몸은 크게 두개의 유형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일부분적인 조각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형태이다. 몸은 조각들로 제시되거나, 정체성에서 불가사의한 덩어리로서 제시된다.

몸은 보는 사람이 그가 보고 있는 것 속에 존재되어 있는 자아요, 느낌의 행위가 느껴진 것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다.<sup>42)</sup> 따라서 패션에 대해 두 가지의 지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나는 대자적 평가이고 또 하나는 대타적 평가이다. 전자는 촉감과 근육 감각을 통해 맞음새 등의 구조적 평가를 내린다. 후자는 형태, 색상, 재질감과 움직임에 따른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 즉, 조형적 평가를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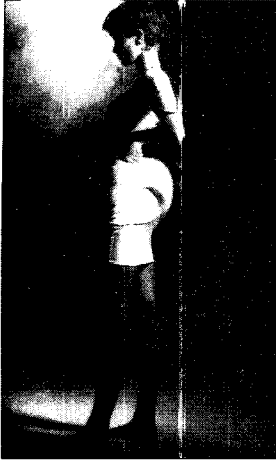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가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자신의 성과 몸을 지각하며, 자신의 환상을 실험하였고 돌연변이적인 몸이나 개인적 미감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개조된 몸을 제시하였다.<그림 7> 한스 벨머(Hans Bellmer)는 육체적 무의식을 철저히 해부하여 한 개의 이미지 속에 다양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혼성적 여성상을 창조했다. 운동의 부동성 사이의 날카로운 갈등에서 비롯되는 아름다

운 존재의 극한적 긴장을 암시하는 ‘블랙 유머’는 일종의 시적 테러리즘을 조성한다. 일종의 억압에 대한 반작용 또는 순응의 형태를 띤 이러한 경향들은 그 표현과 발언의 사회적인 구조와 상동관계 속에서 표현과 발언의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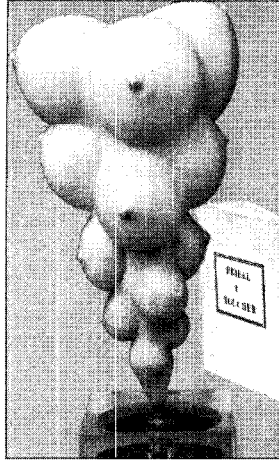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의 유형분석에서 중요한 특징적 요소는 몸과 성의 해석이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작품에는 데페이즈망과 트롱플레이유의 기법으로 상징화된 얼굴과 몸의 초현실주의 표현이 보인다. 한스 벨머(Hans Bellmer)는 작가의 주관적인 성감과 성적환상을 초현실적으로 해석하여 신체의 부분을 재조합하여 상징화하였다.<그림 8>

존 갈리아노(John Galiano)는 일본 무사의 전투복에서 영감을 받아 ‘기모노 코트’를 발표한다. 그의 작품은 관념적 노출 부위의 폐쇄로 이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오히려 선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갑옷 형태에 가려진 여성성의 은폐에서 무의식적 에로티시즘 무드를 표현한 것이다.<sup>44)</sup> 그는 20세기의 여성성을 하나의 구조물로 파악하고 분석, 비판, 해체의 방법으로 이념적 이슈를 취급하였다.<그림 9> 또한 루이스 부르즈와(Louise Bourgeois)는 몸을 은유하는 질감의 라텍스와 같은 고무재질을 사용하여 초현실적이면서도, 끈끈한 장기나, 남성의 성기, 생명의 부화를 상징하는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조각은 신체와 마찬가지로 내 육체는 바로 내 조각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성을 통해서 경험한 개인적인 내면세계를 사회적 페미니즘으로 확장시켜 신체, 성,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몸을 재창조 하고자 하였다.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을 이중적으로 병존시키는 이 작품에서는 작가위에 입혀진 몸의 이미지가 의상의 존재이면서도 몸의 존재로 다시 한 번 재생산된다.<sup>45)</sup> 이는 패션아트의 기능성, 목적성, 기존의 관습적인 형태미를 해체시키고 불규칙, 무질서, 불완전, 비대칭 등의 현대의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사용되는 조형 표현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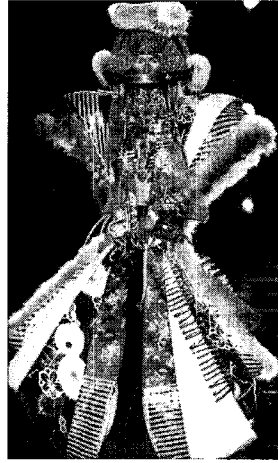
몸과 정신의 이중적인 성격의 통합이 기획된 후



〈그림 7〉 Georgian Godley, *Shaped Underwea*, 1986.



〈그림 8〉 Hans Bellmer, *The Top*, 1938.



〈그림 9〉 Christian Dior, *Kimono coat, designed by John Galiano*, Fall/Winter 2001.



〈그림 10〉 Louise Bourgeois, *Costume for A Banquet*, 1978.

기 현대사회에서는 대중적 영향력이 높은 패션을 도입해 인간의 욕망, 죽음, 젠더, 정체성, 성적쾌락 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패션성이 강한 일부의 작품은 패션아트의 한 맥락으로 해석되었다.<sup>46)</sup>〈그림 11〉

### 3. 존재성

하르트만(Karl Robert Eduard von Hartmann)<sup>47)</sup>은 정신적 존재를 개인적 정신, 객관적 정신, 객체화한 정신이라는 세 가지 근본 형식으로 구분한다. 이때 작가의 창작정신이나 관조자의 감상정신은 개인적 정신에 속하고 한 시대의 예술적 이해의 경향은 객관적 정신에 속하며, 예술작품은 객체화한 정신에 속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편집병적 비판방법(Paranoia Critical Method)에 근거한 작품들을 통하여, 내장적 체험을 바탕으로 탈현실화를 이룩하고<sup>48)</sup>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의 상상력의 해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상상력 자체에 독립된 체계와 자율을 부여하여

상상력의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순수한 무의식을 표출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어윈 브루멘펠드(Erwin Blumenfeld)는 무의식과 존재의식의 혼재된 정체성을 이중영상의 착시적인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호스트(Horst P. Horst)는 패션사진으로 무의식 세계에서의 존재성을 편집병적인 연출로 표현하여 해석하려 하였다. 편집병적 비판방법은 오토마티즘 방법에 의한 수동적 태도와는 다른 성질의 가려진 진실을 찾는 초현실주의의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추구를 목표로 하면서도, 초기 초현실주의의 순수 오토마티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보다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표현적 특성을 보인다.

제레미 스콧(Jeremy Scott)은 새의 날개형태를 한 조형표현으로 신체의 존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재해석과 왜곡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웨이브로 말아 올린 헤어스타일과 가슴부분의 형태는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시조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을 드러내고 있으며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조류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코트와 머리장식으로 일반적인 미적 가치에서 벗어난 이질적 요소와 부조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표 3〉 패션아트에 반영된 초현실주의 요소

	개념	표현요소	조형성
시간성	1. 발산하는 개념 2. 신구조 제시의 개념 3. 새로운 창조의 개념	1. 원시자연물 2. 이질적인 소재 3. 실재와 환영	1. 의인화와 구조적 변형 2. 이질적인 소재의 자유결합 3. 주관적 상징의 조형
본능성	1. 재해석된 몸의 표출 개념 2. 정체성의 표현 개념 3. 성의 재해석 개념	1. 몸의 부분과 파편화된 이미지 2. 성적 상징과 기호 3. 자의적 해석으로 변형된 몸	1. 모순되고 이중적인 조각화 2. 이성적 인식과 본능적 인식의 직관적 상징을 조형화 3. 인체의 기능, 비례 구성에 대한 개인적인 재해석의 조형화
존재성	1. 존재가치의 표현 개념 2. 존재성 초월의 개념 3. 새로운 존재 창조의 개념	1. 주관적 환상으로 그려진 인체 2. 자연물의 인공물 3. 전자기계와 사이버그	1. 관념적 조화를 해체하고 파괴하여 새롭게 조형화 2. 원시의 존재로 회귀하는 갈망을 상징적으로 조형화 3. 이질적 요소, 부조화 상황을 충격적이고 실험적으로 조형화

이렇게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부조화된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존재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부여한다.〈그림 12〉

베라 렌돌프(Vera Lehndorff)는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을 염원하며, 인간이 영원한 존재물로서의 자연물이 되기를 염원하는 자신의 파라노이아적 존재적 욕망을 초현실주의적 이미지의 오브제 조합으로 실험하고 있다.〈그림 13〉 이해주의 '존재를 위한 의상'은 인간의 정신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며 또 하나의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부정형의 초현실주의적 표현방법으로 재현하고 있으며,<sup>49)</sup> 플라쥬 등의 구성으로 우연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실험을 보여준다.〈그림 14〉 까스텔 바작(Jean-Charles Castellbajac)은 일반적인 바지형태의 상의를 제작하여 데페이즈망의 위치전환과 함께 확대된 이미지의 초현실주의 조형을 제안한다. 또한 작품 형태상의 무게중심을 위로 이동하여 불안정한 형태와 경직된 실루엣을 표현하며 패션의 존재성에 대한 실험을 보여준다.〈그림 15〉 다이나 사바(Dina Sabbar)의 '갓 헤라(God Hera)'는 원시의 기괴한 문화를 새로운 소재와 표현방법으로 재구성해 역사적 존재론의 탐구에 대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으며,〈그림 16〉 손제 페리치아노 솔로몬(Sonje Feliciano Solomon)의 '소프트 지오메트리(Soft Geometry)'는 작가 자신의 존재의

미를 공간에 포함시키는 패션설치와 퍼포먼스 작업으로 관객에게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그림 17〉

초현실주의 패션아트의 존재성에 대한 표현은 작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존재성에 대한 실험과 창조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 인간의 존재와 욕망의 끝없는 도전과 환상을 보여주며, 포기과 좌절의 과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신체와 정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고의적, 주관적, 초현실적인 견해에서의 발전형태이며, 전통적인 존재관념의 파괴와 함께, 균형과 조화에 기반을 둔 미적 조형보다 내적 환상의 표현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의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합일이나 종속을 제안하기도 하며 조형적 실험과 표현으로 대안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그림 18〉

#### IV. 결론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의 유형분석'이라는 주제로 현대의 예술과 초현실주의, 패션, 패션아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유형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사고와 표현은 대표적으로 순수 오토마티즘, 편집병적적 비판방법, 우연 플라쥬의 방법으로 실현되었고 패션아트의 표현도 초현실주의자들이 실험하고 전개한 방법과 유사하였



〈그림 11〉 Yves Saint Laurent, *Evening Dress with Gold Body Sculpture* by Claude Lalanne, 1969.



〈그림 12〉 Yohji Yamamoto, *Peaked shoulder fur coat*, collection Fall/Winter, 1996.



〈그림 13〉 Vera Lehndorff, *Tree Nymph Peterskirchen*, 1971.



〈그림 14〉 이혜주, *존재를 위한 의상*,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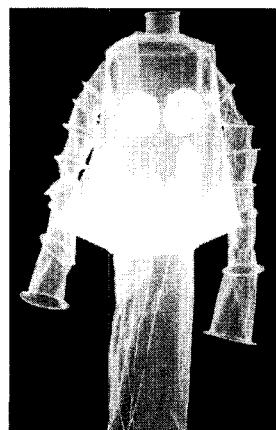
〈그림 15〉 Jean-Charles Castelbajac, *Jean Dress*, 1984.



〈그림 16〉 Dina Sabbar, *God Hera*,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2002.



〈그림 17〉 Sonjie Feliciano Solomon, *Soft Geometry*,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2002.



〈그림 18〉 유영선, *두개의 달*, 패션아트 페스티벌, 1997.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현실주의적 표현방법이 적용된 패션아트 작업은 크게 시간성의 표현, 본능성의 표현, 존재성의 유형으로 대별됨을 살펴보았다.

첫째,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에서의 '시간성'은 새로운 창조의 방향을 보여주는 도구이며,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간성의 개념이 표현된 패션아트작품에는 인간을 비롯하여 초현실적인 존재, 비현실적인 존재

들이 등장하며 특히, 원시에서 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작품에는 초현실적 사건, 비현실적 사건이 발생하며, 패션아트의 배경은 시간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초현실주의 패션아트의 시간성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지니지만 순수 예술의 표현요소의 범주 안에 있다. 이는 시간의 혼동, 시간의 결합에서 파생되는 원시와 미래의 요소

가 순수예술표현에서의 그것과 동일함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에서의 '본능성'은 패션아트에서 일차적으로 추구되어야 될 대상이며 창의적 패션아트를 위한 확대된 개념으로서 실험되고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몸을 메타포, 메타모르포시스, 메타피식으로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패션아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몸은 성욕의 중심지이자 표현의 장소로서 쾌락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의 억압과 간섭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이며 문화적 의미와 기호가 매겨지는 텍스트의 바탕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몸과 성의 본능성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구조를 이용하여 보이는 몸을 벗어나 잠재의식과 무의식적 감각에 충실한 표현을 하였다. 그들의 작업에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리비도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볼 수 있으며 개인적인 에로티시즘의 표현과 함께 유희적 대상으로 인체의 왜곡된 상을 추구하였다. 작가들은 성과 몸을 크게 두개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제시된 조각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형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와 반영이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본능성은 몸과 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며, 감수성과 의식 포착의 순간들을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성과 몸을 지각하며, 자신의 환상을 실험하며 돌연변이적인 몸이나 인공적인 몸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에서의 '존재성'은 초현실주의자들의 편집병적 비판방법에 근거한다. 작가들은 내재적 체험을 바탕으로 탈현실화를 이룩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이를 표현하였다. 정신과 신체의 존재성에 대한 이분법적 실험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른 존재를 재현하는 등 환각세계와 잠재의식 세계의 존재성을 보다 다채롭게 전개시키며 구체적인 비논리성이 지배하는 정신착란의 세계를 조형적 수단과 표현으로 존재화 시킨 것이다. 이는 신체와 정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고의적, 주관적, 초현실적인 견해에서의 또 다른 존재성의 개발이며 전통적인

관념의 파괴와 함께, 균형과 조화에 기반을 둔 미적 조형보다 내적 환상의 표현의지를 우선시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초현실주의 사과의 순수예술이나 패션아트 모두 의식과 무의식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주제로부터 부딪힌 문제점을 감각적으로 변형시켜 해결하는 과정이며, 작가는 작품 창작을 위해 주관적인 사고를 전개시킨다. 이는 단순히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자발성의 표현의 개념이다. 작가는 고유의 경험, 철학, 사상,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며 초현실주의 사고에서 기인한 표현방법으로 수동적 이미지의 발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변형, 치환하여 무의식에 가려있는 환상을 상징화하여 실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부정적인 속성을 특징지으며 전통적인 미의 개념에 위배되는 왜곡과 변형 그리고 비물질화를 실험하고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소재를 결합시키는 실험을 전개하거나 신소재를 개발하고 창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의 유형분석'이라는 광범위한 연구범위로 인해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연구의 추가적인 필요를 가지며, 새로운 방식의 연구방법론 개발이 한계로 남는다. 이번 연구는 패션아트의 개념 정립을 위한 예비적 단계이며 본 논문을 기초로 앞으로 더욱 발전될 패션아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설정에 필요한 활발한 활동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패션아트 작품이 창작되고 패션디자인과 관련 산업에 패션아트의 예술표현이 적절하게 응용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Maurizio Fagiolo dell' Arco (1988). *Bella The Futurist*. New York: Rizzoli, p. 7.
- 2) Lizst, Giovanni, 정진구 역 (1988). *미래파*. 서울: 열화당, p. 14.
- 3) Jane A. Farrell-Beck, Jan Verploeg Petsch (1984). *Colored Compare: Matisse & Picasso With Chanel*

- and Vionnet, H. E. R.J., Vol.13, pp.206-14.
- 4) 패션아트의 범위는 2장 이론적 고찰에서 정의한다.
  - 5) Lambert, Rosmary, 이석우 역 (1990). 20세기 미술사. 서울: 열화당, p. 9.
  - 6) 조규화 (1993).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270.
  - 7) 문영애 (1999). 캐주얼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색채와 비례에 의한 복식조형.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 115.
  - 8) 신승환 (2001). 인간연구, 2, 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pp. 40-65.
  - 9) Cassirer, Ernst, 서광사 역 (1988).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광사, pp. 213-61.
  - 10) 다다이스트로서 레디메이드(Ready-made)라는 미적 개념을 창조했음. 이는 기성품을 그 일상적인 환경과 장소에서 옮겨 놓으면, 그 본래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고 드디어는 단순히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 11) 임영방 (1984).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61.
  - 12) 오병욱 (1996). 다다와 초현실주의. 원광대학교 논문집, 32(2).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p. 442.
  - 13) 브르통(André Breton): 1917년 이후는 아폴리네르, 아라공, T. 수포, P. 차라 등과 지내면서 오토마티즘에 의한 작품 『자장(磁場)』(1921)을 수포와 함께 지었으며, 다다이즘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 14) 초현실주의 선언: 합리주의를 부정하고, 무의식의 외재화(外在化)에 의한 인간의 해방을 선언하였다. 1924년에 '제1선언'이, 1929년에 '제2선언'이 출판되었다.
  - 15) André Breton, 문학과 지성사 역 (1987). Manifeste Des Surrealisme(초현실주의 선언문), 문예사조,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265.
  - 16) Edward Lucie-Smith (2002). *Art Now*, Germany: Taschen, p. 48.
  - 17) 이일 (1984). 현대미술의 궤적. 서울: 동화출판공사, p. 27.
  - 18) Jose Pierre, 박순철 역 (1994). *Surrealism*, 서울: 열화당, p. 12.
  - 19) Sarane Alexandrian, 이대일 역 (1984). *Surrealist Art*, 서울: 열화당, 1984, p. 26.
  - 20) Herbert Read (1984). *The Meaning of Art*, New York: Faber & Faber: New and rev. ed edition, p. 30.
  - 21) Jose Pierre, 박순철 역. 위의 책, p. 18.
  - 22) Serge Fauchereau (1988). *Arp*, New York: Rizzoli, p. 18.
  - 23) Edward Luice-Smith (1975). *Late Moder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48.
  - 24) 이브 탕귀(Yves Tanguy)는 1917년 스케치작업 중 실패한 종이를 찢어 버렸으나 잠시 후 마루에 떨어진 종이조각들을 모으면서 그의 실패한 표현의 힘과 조형을 발견 하였다. 그는 우연하게 다가오는 도전을 하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흩어져 있는 종이조각들을 우연히 지시하는 대로 풀로 붙였던 방법이다.
  - 25) 편집증 환자는 환각능력에 의해 한 물체를 그대로의 상태에서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세밀한 사실적 수법으로 마치 「상상세계의 손으로 그린 색채사진」처럼 그려진 화면은 교묘히 구성되어 초현실적 세계가 된다. 더블 이미지나 다중상(多重象)이 일으키는 환각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방법이다.
  - 26) Edward Luice-Smith. 위의 책, p. 36.
  - 27)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1, 2, 경기: 교문사, p. 40.
  - 28) 박민여 (2002). 패션아트 도록. 서울: 패션문화협회, p. 7.
  - 29) 김민자. 위의 책 1권, p. 196.
  - 30) Squire, G. (1974). *Dress Art and Society 1560~1970*, London: Studio Vista, p. 165.
  - 31) 김민자 (1989).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2), 서울: 대한가정학회, pp. 1-19.
  - 32) 김민자. 앞의 책 2권, p. 251.
  - 33) Julie Schafler Dale (1987). *Stayle: The nontraditional Ewarable. Craft Horizen, Oct, 1987*, p. 27.
  - 34) Linda dyett (1983). *Art to Wear. American Craft Nov. 1983*, p. 18.
  - 35) 이성순 (1982). 새로운 섬유예술운동으로서의 미술의상. 월간디자인, 2월호, 서울: 디자인하우스, p. 38.
  - 36) 김지희 (1995).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25, 원주: 상지대학교, p. 12.
  - 37) 허정선 (2004).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 8.
  - 38) 허정선. 위의 책, p. 121.
  - 39) 배천범 (2002). 광주비엔날레 국제의상전 도록. 광주: 광주광역시, p. 62.
  - 40) André Breton (1988). *Second Manifeste du surrealisme in Oeuvres completes, édition établie par Marguerite Bonnet avec la collaboration de Philippe Bernier, Etienne-Alain Hubert et José Pierre*,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t. I, p. 781.
  - 41) 예술적 상징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한 것을 의미하며 작가가 갖는 무의식의 이미지가 표현의 내용이 되었다. 이것은 왜곡이라는 관념과 결합이라는 관념이 특별히 강조된 것이다.
  - 42) Merleau-Ponty, Maurice, 오병남 역 (1983). 현상학과 예술(Phenomenology and Art), 서울: 서광사, p. 291.
  - 43) 박선우 (2004). 사회적 영향에 의한 현대 도예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 128.
  - 44) 조경희 (2003). 현대패션의 미. 서울: 경춘사, p. 160.
  - 45) 허정선. 위의 책, p. 109.
  - 46) 허정선. 위의 책, p. 2.
  - 47) 《무의식의 철학 Die Philosophie des Unbewussten》(3권, 1870)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것은 A.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적 의지철학을 자연과학의 진화론으로 매개(媒介)하면서 G. W. F. 헤겔의 변증법적 발전 사상으로 결합시키고, 해탈(解脫)을 정점으로 하는 발전의 비전을 유려한 문장으로 서술한 것이다.
  - 48) Ferdinand Alquie (1969). *Philosophy of Surrealism*,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p. 75-6.
  - 49) 이혜주 (2002). 광주비엔날레도록. 광주: 광주광역시, p. 284.